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6월 21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16장 24-28절

설교제목 :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부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고백의 문제보다 삶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보증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확신은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르게 고백하는데 그 바른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확신하는데, 그 확신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확신은 진정한 확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직분자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마7:21-23) 이것은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받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으로 증명받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따라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약2:26)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육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만 가지고 이를 지키려 하는 자는 끝내는 육적인 생명과 더불어 영적 목숨도 잃게 되어나,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신의 육적 생명을 바치고자 헌신된 삶을 산자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마16:25-26) 인생의 성공은 방향 즉 목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쾌락을 위해 산 삶을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다 바람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공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비극적인 삶으로 끝이 납니다. 모두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된 성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요14:6)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삶의 목적을 찾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분명히 주님만이 인생의 그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더 이상 헛된 목표를 향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되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더불어 제자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주십니다.(27절)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이 날날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위장하거나 숨김없이 모든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드러난 행동, 속마음, 간교한 생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것에 상을 주십니다.(마25:31-40)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28절) 마가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막9:1)고 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눅9:27)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해석의 키는 제자들이 보게 될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시된 십자가 상에서의 주님의 승리,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그리고 역동적으로 확산되는 복음의 전파 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주님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 맞붙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맛보게 합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를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성공 길을 걸으며,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의 수여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마25장 31-40절을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척이나 풍요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요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